

학업중단 학생 느는데 예산 삭감... “부처간 협업 지원해야”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33.5% 증가 중단 늘었지만 학업복귀율은 높아 서울시 학업지원금 5개월만에 소진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을 벗어나는 교육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결맞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는 등 학업 지원은 축소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 급증... 앞으로 더 늘어날 것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등으로 공교육을 포기한 학업중단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4만2000여명의 초·중·고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특히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에 4만



구미 형남중학교가 지난 15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참관수업을 진행했다.

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중학교 21%p, 고등학교 39%p 등이 늘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기간 동안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학생들이 학업적, 관계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등교를 거부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대면 수업 방식에 적응됐을

을 물론이고, 학교폭력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아이들이 쉽사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 학력취득, 취업지원 등은 물론이고 사회 적응과 학업 복귀까지 돕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학업중단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학교를 떠났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율은 지난 2018년 23.1%에서 올해 33.2%로 증가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서 ‘사회 밖 청소년’되나...지원 부족 우려

서울시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 예산을 15% 삭감하면서 신청 5개월 만에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됐다. 지난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은 매년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이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교실을 떠난 청소년의 관리·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반대로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범주에서 학습 지원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여가부 소관 법률로 담당 업무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 밖 청

소년이 학교를 떠났거나 소관이 아니라 는 이유로 지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교실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교 밖 적응까지 돕지 않는다면 사회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학업지원금 예산은 3억원이 추정돼 300여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줄어 250여명 정도만 지원 가능했으나 1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400여명까지 지원 여유가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400여명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대학생이 ‘청년 삶 개선 정책’ 제안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마련 청년의 날, 청년 주간 기념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관을 기념해 대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청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3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법정기념일)하고, 청년의 날을 포함해 일주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특히,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많은 학생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영상)으로 개최된다.

올해 5월 출범한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한 결과, 총 37명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및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이번 정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안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들이 가진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성신여대, 정유정 작가와의 만남 ‘성황리’

지역주민 등 총 150여명 참석

성신여자대학교는 최근 수정캠퍼스(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이 시대의 이야기꾼, 정유정 작가를 초청, ‘행복의 조건: 우리 곁의 나르시시스트’를 주제로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성신여대 중앙도서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성신여대 재학생은 물론 수정캠퍼스가 위치한 성북구의 지역주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저자와의 만남은 성신여대 중앙도서관이 재학생,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역주민까지 초청한 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강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수정관 420호에서 정유정 작가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신여대

연자 또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로 선정된 정유정 작가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정유정 작가는 지난 2021년 6월 출간한 스틸러 장편 ‘안전한 행복’을 통해 던졌던 질문을 현장에 참여한 독자와 함께 나눴다.

/신하은 기자

경희사이버대 ‘우영우 신드롬’ 개강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지난 17일 ‘우영우 신드롬,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주제로 2학기 온라인 개강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부각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가로 초청된 안동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현동심아동연구소 대표는 아동정신병리학의 권위자로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와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안 교수는 며 학생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복합결제 추가... 서울페이플러스 3.0 출시

가맹점주 위한 서비스도 확충

서울시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3.0 버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용자를 위한 구매와 결제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복합결제가 가능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결제 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을 때 서울페이플러스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를 차액을 자동 결제하는 기능이다.

또 시는 상품권 구매 아이콘 클릭시 상품권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잔액 한도를 한번에 보여주는 기능과 자치구별 상품권 총발행 규모 중 잔여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수당, 보조금 등 이용자 특성에 맞춘 지원금 추천 서비스도 신설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 중인 정책수

당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연령, 거주지, 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생애 주기별 지원금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가맹점주를 위한 서비스도 확충했다. 시는 가맹점에 대한 상권분석부터 고객분석, 매출분석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포트를 제공해 사업 운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서울페이플러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 365일 24시간 ‘AI 챗봇’ 상담을 새롭게 만들었고, 특상담 예약 기능도 추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민의 스마트한 결제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페이플러스 3.0이 서울생활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보석산업의 모든 것 ‘주얼리 스마트 워크’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유튜브 생중계

서울시는 이달 23일 주얼리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행사인 ‘2022 주얼리 스마트 워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주얼리 스마트 워크는 도매, 제조, 마케팅, 가상 쇼룸에 이르는 주얼리 유통 전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전파하고, 디지털 서비스와 장비 등을 소개하는 행사다.

주얼리 스마트 워크 온라인 생방송 사전 접수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당일 온라인 생방송에 참여해 댓글을 등록하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시는 9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코엑스 B홀에서 ‘2022 서울 국제 주얼리&액세서리 쇼’를 개최한다. 100여 개의 주얼리 박람회, 수출 및 유통 상담, 다양한 주제의 정보 세미나, 합성 다이아몬드 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기간 50여개 주얼리 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iki@